

해 사비.

앗씨처럼 나린다
보슬보슬 해 사비
맞아 주자, 다가치
 옥수수대 처럼 크게
 닷자엿자 자라게
 해 사님이 웃는다,
 나보고 웃는다,

하날다리 놓였다,
알롱달롱 무지개
노래 하자, 즐겁게
 동모들아 이리 오나,
 다같이 춤을 추자,
 해 사님이 웃는다,
 즐거워 웃는다.

一九三六、九、九、

해 사비

아씨처럼 나린다
보슬보슬 해 사비
맞아주자, 다같이
 옥수수대처럼 크게
 닷자엿자 자라게
 해 사님이 웃는다
 나보고 웃는다

하늘다리 놓였다.
알롱달롱 무지개
노래하자, 즐겁게
 동무들아 이리 오나
 다같이 춤을 추자
 해 사님이 웃는다
 즐거워 웃는다

1936. 9. 9.